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이 1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와 함께 버스 및 트럭 전기화 추진 발표

뉴욕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50년까지 중대형 차량의 유독 디젤 배기가스 완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을 약속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의 노력을 지원

뉴욕의 최대 기후 변화 요인인 운송 부문 전기화를 추진하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이 14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와 함께 버스와 트럭의 전기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동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따라 주정부는 대형 픽업 트럭과 밴, 배송 트럭, 박스 트럭, 학교 및 대중 교통 버스, 장거리 배달 트럭을 포함한 중대형 전기차 시장을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MOU의 목표는 2050년까지 모든 신규 중대형 및 중장비 차량 판매의 100 퍼센트가 배기가스 제로 차량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2030년까지 중간 목표는 해당 범주의 차량 판매량의 30 퍼센트를 배기가스 제로 차량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주정부의 주요 목표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리더십 부족 및 과학을 경시하는 태도로 인해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는 주정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중형 및 대형 차량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면 모든 뉴욕 주민들이 마시는 공기가 더욱 청정해질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및 유색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불균형하게 환경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겪어왔습니다. 뉴욕이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이니셔티브를 계속 시행하는 가운데, 다수의 주정부가 참여한 본 협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주정부의 필수적인 리더십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주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합니다."

MOU의 서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현재 운송 부문은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오존 및 스모그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트럭과 버스의 전기화를 가속화하면 경제 전 부문에서 배출량 대거 감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트럭과 버스는 미국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4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해당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약 1/4에 달합니다.

또한 트럭과 버스의 전기화는 중형 트럭 운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기 오염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형 및 대형 트럭의 디젤 배출가스는 미립자 물질 및 공기 독성 수준 상승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배출가스는 주로 주요 트럭 운송 통로, 항구 및 유통 허브 근처에 위치한 저소득층 지역사회 및 유색 지역사회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주정부가 선도하는 기후 관련 조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선도하는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뉴욕은 현재 가장 큰 기후 오염의 원인인 운송 부문 배출량을 반드시 줄여야만 합니다. 오늘 발표는 기후 정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및 주정부의 지속적인 청정 에너지 투자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이 기후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와 귀중한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MOU 서명자들은 항공 사용 관리 조정을 위한 노스이스트 스테이트(Northeast States for Coordinated Air Use Management)가 시작한 기존의 [배출가스 제로 차량 태스크포스\(ZEV Task Force\)](#)를 통해 버스 및 트럭을 위한 배출가스 제로 차량(zero emission vehicle, ZEV) 실행 계획을 개발 및 구현합니다.

전기 트럭과 버스를 비롯해 이러한 차량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를 촉진 및 투자하여, 서명자의 관할구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력적이고 깨끗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운송 부문에 전기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합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정부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클린 트랜스포테이션 뉴욕(Clean Transportation NY)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획은 최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폭스바겐(Volkswagen) 합의금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뉴욕의 국가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뉴욕의 계획입니다. 자금은 스캔들을 부정

폭스바겐(Volkswagen) 차량의 유해 배출 은폐 스캔들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폭스바겐과의 연방 합의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주정부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합의금 투자로 뉴욕의 도로에는 최소한 3억 달러 규모의 청정 차량 및 인프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송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은 뉴욕주 전체 배출량의 약 34 퍼센트를 차지하는, 뉴욕주 최대의 온실 가스 배출원입니다. [뉴욕주의 청정 운송 뉴욕\(Clean Transportation NY\)](#) 프로젝트 시행의 현재 상황은 D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주정부와 초당적인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10개 주 파트너와 함께 전력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인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서 탈퇴하자, 뉴욕은 [미국 기후 연합\(U.S. Climate Alliance\)](#)을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 경제 규모가 11조 7,000만 달러에 달하는 25개 주 및 영토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뉴욕주는 2040년까지 비탄소 전기 시스템을 만들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의 8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다른 주들과 국민이 신속히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때 필요한 새 기준을 세웁니다. 새 법으로 풍력, 태양광,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저장 등 청정 에너지 해결방법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